

#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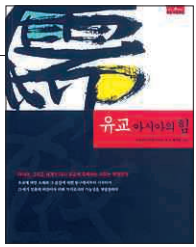
## ‘인간의 길’을 다시 고민하다

유교 아시아의 힘 KBS인사이트아시아팀

지난 주말과 휴일 KBS에서는 방송 80년 문명 대 기획 인사이트 아시아 4부작 ‘유교 2500년의 여행’ 1·2부를 방영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상징되는 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다뤘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 제임에 틀림없다.

프로그램 방영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지만 제작기간 1년 6개월, 제작비 6억원에다 찍어놓은 테이프만도 40분 분량 300여개에 달한다. 사전 조사 자료까지 치면 그 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제작진이 느꼈을 편집의 고통이 전해진다. ‘유교 아시아의 힘’은 방송을 위해 취재했던 내용을 글로 옮겨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책이다.

‘KBS인사이트아시아’ 시리즈는 이번 ‘유교편’을 시작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9권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물론 그 때마다 취재 내용이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유교 2500년의 여행’ 3·4



4부는 2~3일 오후 8시에 각각 방영되며,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오는 9~10월 방영 예정인 ‘천상의 길-차마고도(茶馬古道)’(가제)다.

대형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케케묵은’ 유교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현대 들어 보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유교문화권의 질적·양적 성장이 후시 유교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서구인들의 관심이 크게 작용했다. 정작 그 나라들에서는 푸대접(?)받고 있을지라도.

유교의 발상지 중국에서는 1919년 신문화운동, 1966~1976년 문화대혁명 등이 보여주듯 노골적으로 유교를 배척했다. 우리나라 역시 유교는 비관론의 대상이었고, 서구의 사상에 비해 열등한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향교(鄕校)’에 대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책을 통해 제작진이 던지고 있는 화두는 ‘유교가 현대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인류의 미래를 제시할

답을 가지고 있는가’다. 이를 위해 우선 유교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칭송하는 분위기는 ‘인(仁)’의 가치인 ‘효(孝)’라는 대의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이며,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는 비합리는 ‘예(禮)’의 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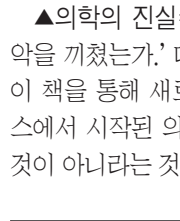
하지만 제작진은 취재를 하며 들여다본 유교가 “결코 난해하거나 현실과 괴리된 사상이 아니며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말한다. ‘의(義)’의 가치를 축약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이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옳은 것인지 생각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잠언이다.

현대 사회의 수 많은 충돌의 해결을 위해 유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작진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거나, 유교는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삶의 철학 정립, 갈등·충돌 없는 조화로운 관계 실현, 자본주의 모순 극복 등 21세기 인류의 비전을 제시할 중심 가치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담·1만6천800원〉  
/정성명기자 camus@kwangju.co.kr



▲우주의 사투리=노벨문학상 후보에 여러 차례 오르며 한국에서 가장 노벨상에 근접한 문인으로 평가받는 고은 시인의 문학행로를 그린 책. 1·2부는 강연문, 기고문 등을 통해 본 저자의 시 세계이며, 3부에서는 시와 저자의 특별한 사연이 소개된다. 〈민음사·2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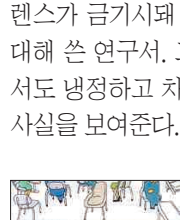
▲의학의 진실=부제가 섬뜩하다.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데이비드 윌슨 영국 요크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의학사를 뒤집는다. 히포크라테스에서 시작된 의학이 눈부신 진보만을 거듭해 지금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티·1만6천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교수의 신간. 잘못 알고 있었던 역사를 바로잡고 근대화 과정에서 묻혀버린 반란자들을 바로 세운다. ‘반란성’이 주체적 인간의 뿌리이며 신자유주의 폭력에 맞서는 길이라고 말한다. 〈한겨레출판·1만5천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일본 NGO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가 그동안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노동, 이주여성, 어린이 교육, 의료와 사회보장 등 이주자 관련 현실 문제를 따지고 있다. 〈산지니·1만3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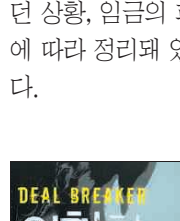
▲그 남자의 뇌, 그 여자의 뇌=사이언스 배런코언 미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교수가 뇌과학과 심리 실험을 통해 남녀의 근본적 차이를 짚었다. 저자는 여성의 뇌가 의사소통에, 남성의 뇌가 체계를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비디출판사·1만2천원〉



▲조선왕비실록=조선시대 왕비들의 삶을 다룬 책. 신명호 부경대 교수는 신덕왕후 강씨(태조 왕비), 원경왕후 민씨(태종 왕비), 정희왕후 윤씨(세조 왕비), 인수대비 한씨(덕종 왕비) 등 왕비 7명의 삶을 통해 실록의 숨겨진 절반을 채웠다. 〈역사의이침·1만5천원〉



▲정비록=서예 유성룡의 400주기를 맞아 출간된 책. 책은 ‘정비록·2’와 ‘녹후잡기’가 모두 담겨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처참했던 상황, 임금의 피난 실상, 조정 신하들의 행태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돼 있다. 사료로서 가치는 물론 교양서로도 손색없다. 〈현암사·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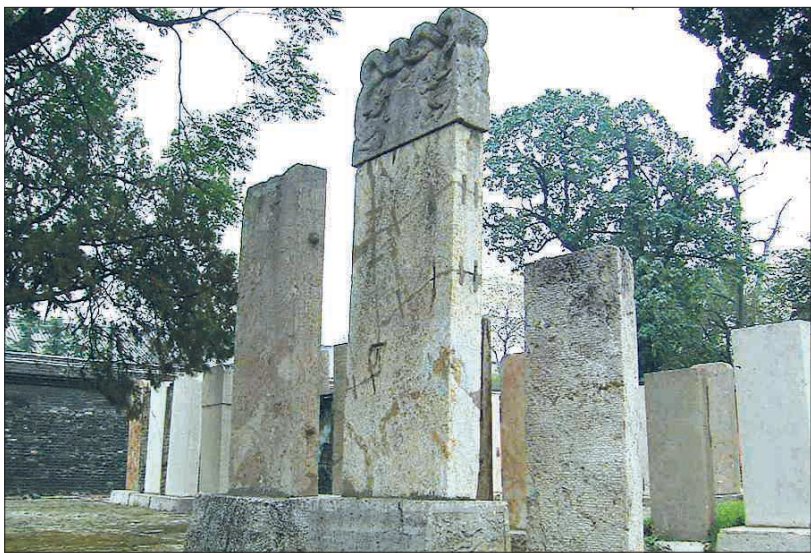
▲위험한 계약(전 2권)=에드가 상, 세이머스 상, 앤소니 상 등 세계 3대 미스터리 문학을 석권한 할런 코벤의 대표작. 주인공인 스포츠 에이전트 마이런 볼리타는 암투와 음모가 횡행하는 스포츠 비즈니스계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한다. 〈노블마인·9천원〉

### ‘... 욕망의 심리학’ 시리즈 7권 출간



뉴욕 공립도서관이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와 공동으로 기획·출간한 ‘우리를 지배하는 7가지 욕망의 심리학’(전 7권) 시리즈가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유명 비평가 조지프 엡스타인, 불교 연구자 로버트 서먼, 여류 극작가 웬디 와서스타인 등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다. ‘시기’, ‘탐식’, ‘화’, ‘계으름’, ‘탐욕’, ‘정욕’, ‘자만’ 등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7가지 대죄’를 다루고 있다. 이들 제목의 리스트는 대죄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어서 이 책은 곧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민음in·9천~1만원〉



파괴된 공자상(왼쪽)과 비석. 문화혁명 당시 공자 사상을 탄압했던 비림비공(批林批孔) 운동으로 유교는 수난을 겪었다.

## 상식 벗어난 ‘모순투성이’ 인간심리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 더글라스 무크 지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의해 유대인 600만명이 학살됐다. 나치 지도자들이 주변이었지만 잔학행위에 동조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내놓은 흥미로운 해석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밀그램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대상자가 잘못할 때마다 15볼트에서 450볼트 전기충격을 가하도록 했다.

상대방에게 처벌상을 줄 수 있는 이 실험을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놀라게도 10명 가운데 7명은 150볼트까지 전압을 끌어올렸다. 1974년 실험 당시 미국 가정의 표준 전압은 110

볼트다. 밀그램은 실험을 끝까지 수행해낸 사람들의 심리를 ‘책임의 전가’로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대학 심리학 명예교수인 더글라스 무크가 지은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는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인간심리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는 심리학의 고전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실험 45가지를 소개하고 자신의 분석을 가미, 인간심리를 자상하게 설명한다.

살인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이었다. 가상 실험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구멍에 나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에 전화를 건 사람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케한다.

이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 비브 라티에와 존 달리는 ‘다수 방관자 효과’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목격자가 많을 경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는 심리가 팽배해짐으로써 누구도 나서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동물과 곤충의 흥미로운 심리도 소개된다. 어미의 젖과 털을 따로 떼놓을 경우, 어미의 털을 선택하는 새끼 원숭이의 심리, 파리의 음식을 섭취 메커니즘 등이 등장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 학습, 인지, 기억, 감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의 심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흥미로운 실험결과와 해석이 제시된다. 〈부글북스·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별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한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한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한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원경장롱12자+화장대세트4침대)(K+립책)**

**Open기념 황토침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한정판매)  
JSD-비토 1,470,000원 (5조한정판매)

미가엘 5인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1350-8764

# KA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가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Hit RC 3000 로봇청소기, K 55 전기빗자루, Hit VR 6100 진공청소기, SC 352 소형 스팀청소기, SC 1122 내력 스팀청소기, SC 1302 내력 스팀청소기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